

르노삼성 “해치백·LCV 전기차 ‘투트랙’으로 27만대 판매”

(경상용벤)



시노라 사장 첫 기자간담회

내수시장 활성화 위해 신차 출시
프리미엄+가성비로 판매 확대
상반기에 해치백 ‘클리오’ 선보

도미니크 시노라 르노삼성자동차 사장이 취임 후 첫 공식행사에서 한국 시장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또 침체된 내수시장 판매 확대를 위해 신차 출시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르노삼성은 1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프르텐설타워 프르텐설 홀에서 ‘2018 신년 CEO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27만 대 판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시노라 르노삼성 사장은 “지난해 국내 시장에서만 10만대 이상의 판매를 기록했다”며 내수시장에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평가했다. 르노삼성은 글로벌 경제 악화로 전반적인 자동차 수출이 하락



도미니크 시노라 르노삼성자동차 사장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르노삼성

하는 가운데에서도 지난해 내수 10만537대, 수출 17만6271대 판매를 기록했다. 특히 국내 완성차 중 유일하게 수출 물량이 증가했다.

이에 시노라 사장은 올해 내수 10만대, 수출 17만대 등 총 27만대로 판매 목표를 잡았다. 경쟁 업체의 신차 출시로 내수 시장이 위축되지 않겠다는 우려에 대해서 시노라 사장은 “좋은 차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

신감을 내비쳤다. 르노삼성이 올해 출시하는 해치백 ‘클리오’는 유럽 동급 세그먼트 중 가장 잘 팔리는 모델이다.

유럽에서 ‘소형차의 교과서’로 불리고 있는 클리오는 1990년 출시된 소형 해치백이다. 전 세계에서 1300만대 넘게 판매되며 경쟁력과 상품성을 인정받았다. 국내 출시를 앞둔 모델은 부분변경(페이스 리프트)을 거친 4세대로 지난해 3월 말 서울 모터쇼에서 공개되며 주목받았다.

또 모델 노후화로 단종 우려가 제기된 SM5와 SM7 등에 대해 “판매를 충분히 늘릴 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단종 계획은 없다”며 “QM6-SM6-QM3는 프리미엄 이미지를 앞세우고 SM3-SM5-SM7은 가성비를 앞세워 ‘투트랙’ 전략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고객들의 접근성을 높여 판매를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노라 사장은 고객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품질 강화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르노삼성은 고객 인도 이후의 차량에 대해서도 품질유지와 고객안전에 책임감을 갖고 더욱 다양해지는 고객의 요구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 개선과 함께 고객 접점을 더 확대할 예정이다.

시노라 사장은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고객들을 생각할 때”라며 “AS 개선을 통해 고객의 이야기를 듣겠다”고 약속했다. 르노삼성은 편리한 AS를 위해 예약 접수를 받는 시간을 단축하는 새로운 프로세스를 도입했다.

시노라 사장은 이날 발표에서 ‘고객 우선주의’를 강조했다. 그는 “고객의 소리를 경청한다는 것은 고객들을 놀라게 한

다는 것”이라며 “트렌드를 정리해 나가는 혁신적인 제품으로 고객들을 놀라게 하겠다”고 밝혀 기대감을 높였다.

이를 위해 시노라 사장은 올해 경상용벤(LCV)을 도입해 새로운 세그먼트에 진출하겠다고 밝혔다. 시노라 사장은 “전기상용벤에 있어서 르노가 트렌드를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르노삼성은 올해 상반기 소형 해치백 ‘클리오’를, 하반기엔 LCV 전기차를 출시할 계획이다.

르노삼성은 미국을 중심으로 프랑스와 한국 등에서 자율주행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르노삼성은 프랑스와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진행 중인 ‘단군 프로젝트’를 통해 저속에서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개발 중이다.

시노라 사장은 “첫 알고리즘을 소형 전기차에 도입해 국내 및 해외에서 자율주행 시험 운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시노라 사장은 “르노삼성은 1000명 이상의 엔지니어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올 한해도 고객, 직원, 한국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김현정 인턴기자 ysw@metroseoul.co.kr

‘T맵’, 인공지능으로 앞차 급제동 알려준다

SK텔레콤 사고위험까지 경고

SK텔레콤은 전방 사고 징후를 뒤따르는 차량에게 일제히 경고하는 기술인 ‘T맵 V2X(차량과 사물간 통신)’를 모바일 내비게이션 ‘T맵’에서 13일 상용화했다고 밝혔다.

T맵 V2X는 앞서가는 T맵 이용 차량이 급제동하면 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최대 1km 내 뒤따르는 차량의 T맵 이용 화면에 일제히 경고 문구를 띄워 운전자에게 주의를 주는 기술이다. 뒤따르는 운전자는 전방 상황이 시야에 보이지 않더라도 T맵 경고에 따라 서서히 속력을 줄여 추돌을 방지할 수 있다.

T맵 V2X의 인공지능은 스마트폰 모션 센서, GPS 정보, 빅데이터 등으로 차량 급제동 여부를 판단한다. SK텔레콤 커넥티드카 플랫폼 스마트 플릿은 급제동 신호를 포착하면 뒤따르는 차량을 추적해 경고를 전달한다. 이 과정은 4G-LTE망을 통해 이뤄진다.

경고를 보내는 범위도 도로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도로나 평균 속력이 낮은 구간에서는 100m 내외 후방 차량에,



모델이 SK텔레콤의 ‘T맵 V2X’ 상용화 소식을 알리고 있다.

/SK텔레콤

고속도로에서는 최대 1km 후방 차량에 위험을 경고한다.

이를 위해 SK텔레콤은 도로별 평균 속력, 경사, 회전 각도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전국 도로를 580만개 구역으로 나눴다. 향후 시간 특성도 반영한다. 예를 들어, 차량 통행량이 적은 심야에는 과속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경고를 전달하는 범위를 길게 산정한다.

T맵 V2X는 소프트웨어 기반 기술이기 때문에 별도 장비 구입이나 월 이용료가 없다.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윈스토어’나 ‘구글플레이’에서 T맵 최신 버전만 다운로드하면 된다. /김나인 기자 silkni@

LG전자 노조, 브라질에 ‘노경 문화’ 전수

(勞經)

브라질 금속 노조 한국으로 초청 제조혁신 성공사례·USR 등 소개

LG전자 노동조합이 브라질 타우바테 지역노조를 한국으로 초청해 선진 노경(勞經)문화를 소개했다.

13일 LG전자에 따르면 LG전자 노동조합이 브라질 타우바테 지역 금속노조의 위원장과 사무처장을 한국으로 초청, 제조혁신 성공사례와 함께 노조의 사회적책임(USR)을 비롯한 노경 문화를 전했다.

브라질은 산업별 지역노조가 해당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들과의 교섭권을 갖기 때문에 타우바테에서 생산법인을 운영하는 LG전자도 이 지역 금속노조와 교섭한다.

타우바테 금속노조 방문단은 지난 12일 경기도 평택시 LG전자 소재·생산기술원을 방문해 스마트공장 준비 현황과 제조혁신 성공사례 등을 소개받았다.

LG전자 노조는 2010년 1월 국내 기



LG전자 배상호 노조위원장(가운데)이 타우바테 지역 금속노조 위원장 ‘클라우디오 바티스타 실바’(왼쪽에서 네번째)와 함께 타우바테 지역 금속노조를 상징하는 휘장을 들고 있다. /LG전자

업 최초로 USR 현장을 선포, 노동조합 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노조가 조합원의 권익 신장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도 다해야 한다는 골자다.

LG전자 노조는 노동·인권·소비자·환경 등 7개 영역에 걸쳐 소비자를 위한 품질강화, 해외법인과 연계한 빈곤 국가 구호, 예비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

로 한 생산성 컨설팅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한편 LG전자는 ‘노사’(勞使)라는 말이 내포한 상호대립적이고 수직적인 의미를 대신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노(勞)와 경(經)이 제 역할을 다해 함께 가치를 창출한다는 의미로 ‘노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정은미 기자 21cindun@

티브로드 설 연휴 맞아 ‘지역채널 특집 편성’

태광그룹 계열 케이블TV방송사인 티브로드는 설 연휴 동안 지역채널 특집편성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설 연휴 기간 TV시청이 어려운 지역주민들을 위해 각 방송국의 페이스북을 통해 라이브방송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시청자는 댓글 등으로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는 형태의 양방향 소통을 한다.

특히 연휴기간 중 귀성길과 귀경길 교통상황이나 주요관광지 정보, 연휴를 즐기는 사람들 등 설 명절과 관련된 정보를 서울과 인천, 한빛, 수원, 기남, 중부, 전주, 대구, 부산권역의 티브로드채널1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역채널을 통해서도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을 편성한다. 통일부와의 프로그

램 교환으로 편성하는 ‘청동아 진정해’ 2부작은 전국 공통으로, 1부는 2월 15일 22시, 2부는 2월 16일 22시에 방송한다. ‘청동아 진정해’는 통일된 미래 한국을 배경으로 멀리 함경도에서 온 청동아(홍경인)가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가는 모습을 그린 웹툰을 웹드라마로 제작한 프로그램이다.

인천방송에서는 연휴 첫날인 15일에 ‘인천동네방네 스페셜’과 ‘설특집 우리동네 알리미’에서 설연휴 가볼만한 곳과 우리동네 맛집 5곳을 선정해서 알려준다.

같은 날 인천지역의 오래된 전통시장에 젊은 창업자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변화하는 전통시장의 모습을 담은 ‘인천의 전통시장 변화가 시작되다’도 방송한다. /김나인 기자



‘라라’ 출연진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SK브로드밴드

SKB ‘옥수수’서 韓-越 영화 ‘라라’ 첫 공개

한국-베트남 합작 모바일무비 ‘라라(LALA): Live Again, Love Again’가 SK브로드밴드의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옥수수(oksusu)’를 통해 13일 오전 10시 최초 공개됐다.

라라는 극장 상영작과 달리 97분짜리

영화를 여러 편으로 나눠 시리즈로 제공하는 ‘모바일무비’ 형태다. 모바일무비는 기존 드라마에서 소화하기 어려운 다양한 실험적인 장르를 선보이며, 퀄리티 높은 영상미를 선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향후 옥수수는 모바일무비의 기획제작을

확대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IPTV 주문형비디오(VOD) 시장까지 확대 진출할 것이라 밝혔다.

판타지 로맨스 라라는 작곡가 지필(산이)이 헤어진 옛 여자친구 윤희(정재연)의 사망 소식을 듣고 찾아간 베트남에서 작곡가를 꿈꾸는 미(치푸)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스토리를 현재와 과거, 현실과 꿈을 넘나들며 담았다. 걸그룹 ‘아이오아이’, ‘다이아’로 잘 알려진 가수 정재연의 스크린 데뷔작이자 베트남 현지에서 개봉 첫 주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른 작품이다.

SK브로드밴드는 라라의 공동제작사로 참여해 옥수수를 통한 콘텐츠 독점 공개뿐 아니라 베트남, 대만, 태국, 싱가포르,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등 10여개국에 콘텐츠 판권사업도 함께 진행한다.

한편, 영화 라라는 22일에 극장 개봉 예정이며, 국내에서는 옥수수에서만 13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공개됐다. /김나인 기자